

「1990 지구의 날」을 맞아

1990년 4월22일은 「제2회 지구의 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환경보전캠페인이 미국을 비롯 소련, 프랑스, 이집트, 중국 등 전세계 1백44개 국가에서 1억이상의 인구가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펼쳐졌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남산, 한강, 북한산등에서 일제히 환경보전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행사의 이모저모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1. 북한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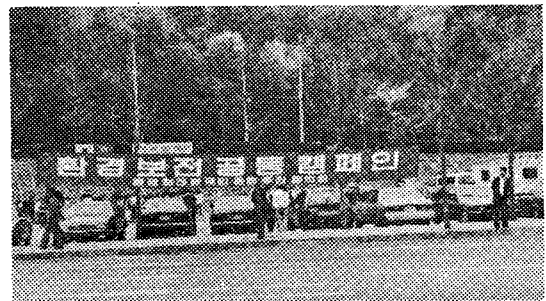
22일 오전 제2회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범국민 운동 추진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산악회가 주최한 “환경보전공동캠페인”이 북한산 우이동계곡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2회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관련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아울러 일반국민들에게 환경보전운동의 실천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하는 목적으로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등 7개단체 천여명이 참석하여 산쓰레기를 줍는 한편 등산객들에게 홍보물인 책갈피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조경식 환경처장관과 본협회 정수장회장을 비롯 각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 기념사를 하는 정수창 환추협회장



▲ 환경보전 공동캠페인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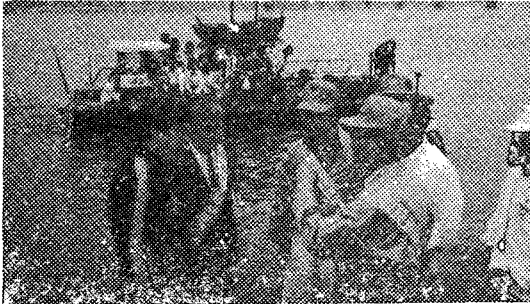


▲ 입구에 걸린 현수막

2. 한강에서

제2회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전 환경보전범국민 운동 추진협의회가 주관하고 자연보호자원봉사단 중앙

회가 주최한 '수중오물수거활동 및 캠페인'이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강의 수중 오물수거 활동과 고수부지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잠수부 80여명이 동원돼 여의도 선착장주변의 수중쓰레기를 끌어올리는 한편, 고수부지에 흩어져있는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이행사는 한국부인회를 비롯 15개단체 200여명이 참여했고 조경식 환경처장관이 다녀갔다.



△ 캠페인 참가자를 격려하는 조경식장관



△ 대회장에 걸린 현수막



▲ 잠수부가 건져올린 수중쓰레기들

3. 남산에서

22일 오후 공해추방운동연합, YMCA, YWCA,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등 6개 민간단체가 주관한 「제2회 지구의 날 행사」가 남산 백범광장(옛 야외음악

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국토, 하나뿐인 생명'을 주제로 ▲ 각계의목소리 ▲ 공해피해자의 고발 ▲ 선언문 낭독 ▲ 시낭송 ▲ 노래와 춤 ▲ 대동놀이 ▲ 코미디 ▲ 강좌 ▲ 환경서약등으로 이루어졌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는 ▲ 환경포스터 그림대회 ▲ 안쓰는 물건 바꾸기 ▲ 유기농산물장터등이 열렸다. 또 주최단체는 가족과 함께온 어린이 1천9백9십명에게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평화의 지구본'을 선착순으로 나누어주기도 했다. P14는 김지하시인이 초안한 「1990 지구의 날 선언문」전문이다.



△ 남산 행사장 전경



△ 공해추방을 상징하는 모형물들

4. 세계각지에서

1990년 「지구의 날(Earth day)」. 22일은 지난 70년에 이어 두번째 맞는 전지구적인 환경보전의 날이다. 이날 지구 곳곳에서는 모두 1억의 지구인이 참가하는 갖가지 행사가 벌어졌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오지는 물론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지구인들은 「어머니 지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집트의 카이로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 덴마크의 코펜하겐등 수많은 도시에서 어린학생들이 식목행사에 참가했다. 동서독의 장벽이 있던 곳을 따라 나무가 심어지고 케냐에서는 1백5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캠페인

이 전개됐다. 미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시는 이날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나무 한그루씩을 선물. 소련의 리투아니아인들은 하루만이라도 독립운동을 멈추고 불가강을 살리자는 주민운동을 폈다. 공해에 찌든 프랑스의 로아르강주변 8백35km에는 인간사슬을 만들어 주민과 관계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독의 본과 영국의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에 대해 회사에 항의하는 모임을 갖고, 홍콩에서는 시가지 청소를 벌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태평양연안인 샌디에이고에서부터 북부 오리건주의 해안까지 대대적인 해변청소를 하고, 캐나다 위니펙의 학생 시민 기업체 임직원과 공무원들은 일제히 길거리청소를 벌였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차를 타지말고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마닐라의 중심가는 이날 하루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소련, 중국, 미국의 등산가 15명은 에베레스트산에 올라 버려진 쓰레기를 제거하고 일본의 다이버들은 근해의 해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세계 곳곳에서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한 각종 강연회, TV프로등이 방영됐다. 홍콩

의 캐세이패시픽 여객기는 기내방송을 통해 공해방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콩의 힐튼호텔에서는 초록색 초코렛을 판매하기도 했다. 네팔의 환경전문가들은 이날 농부들을 제몽하기 위해 시골지역을 방문했다. 이모든 행사는 지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물질이 소멸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더 늦기전에 지구를 깨끗하게 지켜나가야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폴란드 술레지엔 학생들이 카토비체시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1990 지구의 날 선언문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주 가운데 단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를 오염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1백여개국 수억의 인구가 지구의 날을 선포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이 땅과 이 하늘을 자손만대 굳건히 깨끗이 보존하자고 다짐한다.

돌이켜보면 전통적 가치관이 파괴된 이래 서양의 산업문명을 으뜸가는 삶의 양식으로 착각하고 그를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지난 수십년, 이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맹목적인 소비문화 속에서 파멸적인 공해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우리 한반도에서도 목도하고 있다. 산성비가 내리고 식수가 오염되고 도시의 대기가 숨을 쉴수 없을 만큼 더러워진 것은 오로지 서양을 모델삼아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만 급급했던 우리들의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물고기가 기형이 됨은 물론 인간의 후예조차 기형으로 태어나곤 하는 이 무서운 공해의 실상은 오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못한 채 은폐되고 왜곡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 위험의 정도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핵물질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2세, 3세까지도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자인 2만명 이상의 국민이 겪는 참담한 고통은 통제되지 않은 핵물질의 사용이 얼마나 심각한 인간파괴의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잘 고발해 주고 있다. 대도시의 교통공해, 농촌의 농약공해, 그리고 죽어가는 삼림의 모습은 20세기 문명의 가장 추악한 단면이다.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과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인간의 신체적인 안전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불충분한 안전장치는 수백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파괴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우리 자신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데만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후손들이 자자손손 번영하면서 살아갈수 있는 안전하고 안락한 지구를 가꾸어 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소비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근대화의 신화를 추종한 나머지 자연의 조화 속에 살아오던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감각은 전반적으로 부정되고 말았다. 절약과 절제의 미덕, 이웃간의 따뜻한 공동체적 유대감은 최소대한의 소비를 맹목적으로 부추기는 상품경제의 논리 앞에 무참히도 괴멸되고 말았다. 모두가 서로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회, 일시적 생활편의를 위해 나중에야 어찌 되었든 일단은 잔뜩 소비하고 버리는 사회,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와 자기가족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이웃의 불편함은 생각도 않으려는 사회, 이것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룩했다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 이 사회에서 환경은 보전되어야 할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다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일회적으로 소모되어 버리는 편의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기업들은 엄청난 공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그 처리에는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 정부는 급속도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을 두둔할 뿐 환경의 파괴에 제동을 걸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일에는 게으르기 한이 없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아래 장래에 엄청난 파국을 몰고올 수도 있는 환경파괴가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또 미국등 선진국의 무분별한 자원남용과 제3세계로의 공해수출로 제3세계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일방적으로 조종된 소비주의 문화에 휩쓸려 낭비와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활자세를 갖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우리는「하나뿐인 지구」를 더 이상의 파멸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전국민이 새로운 생활자세를 확립한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더불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도시의 환경파괴를 위해 농촌조차 파괴되는 이 잘못된 발전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집단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소비에 만족하는 절제와 검소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조그만 행위도 결코 용납치않고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시정하는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을 자임한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환경보전의 굳건한 연대운동으로 우리의 오늘 선언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죽어가는 지구의 이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살길은 바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뿐이다. 이에 우리는 우선 모든 국민의 자원재활용운동으로부터 선언실천의 시발점을 잡는다.*

1990년 4월 22일